



수애의 연기 도전은 계속 이어진다

수애는 스펀지 같은 배우다. 주위의 좋은 것들을 흡수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 작품마다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드라마 '천일의 약속'은 수애가 배우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작품이다.



그녀의 연기는 매번 진화한다

1979년생 수애는 2002년 MBC 베스트극장 '짝사랑'으로 데뷔한 이래, 드라마 '맹가네 전성시대', '러브레터', '회전목마'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데뷔 초창기에는 70~80년대 대표 배우였던 정윤희를 닮은 것으로 '리틀 정윤희'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드라마 '해신'을 통해 그녀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단아한 이미지를 쌓았고, 영화 '가족'으로는 2004년 청룡영화상과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신인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후 '나의 결혼원정기', '그해 여름', '님은 먼 곳에', '불꽃처럼 나비처럼' 등에서 굵직한 연기를 선보였지만, 흥행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스릴러에 도전한 '심야의 FM'은 '수애를 위한 영화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디오 DJ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수애는 심야 라디오 DJ에게 어울리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매력적으로 영화에 녹여냈다.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는 본격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수애는 도전하는 연기의 즐거움으로 인해 요즘 무척 행복하다고 말한다. 연기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수애는 드라마 '천일의 약속'으로 또 다른 연기변신을 진행 중이다. 수애는 "촬영을 시작한 이후 이제 일상에서도 서연이 된 것 같아 나도 신기해요."라고 말한다.



수애가 연기하는 '알츠하이머'

과거 수애에겐 안전한 연기만 하려던 시절이 있었다.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한 탓이다. 연기를 처음 시작한 무렵에 스스로를 '연기에 한 발만 담갔다' 라고 표현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족한 연기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혼신의 연기를 했다. 그런 수애를 변하게 한 사람은 '님은 먼 곳에'의 이준익 감독이었다.

"이준익 감독님은 제게 많은 걸 알려주셨죠. 소통의 방법이나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 같은 것을 배웠어요. 전엔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오해도 많이 샀는데,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연기에 있어서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예요."

수애는 도전하는 연기의 즐거움으로 인해 요즘 무척 행복하다고 말한다. 연기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수애는 드라마 '천일의 약속'으로 또 다른 연기변신을 진행 중이다.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 이서연 역을 맡아 촬영을 진행 중인데, 수애는 "서연이는 목소리도 크고 말도 빨리하는 성격이라 나와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촬영을 시작한 이후 이제 일상에서도 서연이 된 것 같아 나도 신기해요."라고 말한다.

한편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수애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수애는 극에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을 찾지 못하거나, 새벽에 잠을 깨는 등 공간, 시간 개념을 잃어간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된 뇌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을 포함해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알츠하이머 완치는 아직까지 어렵고, 증상 개선을 돕고 진행을 늦출 뿐이다.

기억을 잃어가는 연기를 통해 수애의 재발견은 시작됐다. **MEDI^YCHECK**